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1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1년 1월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컴퓨터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함.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 생산도 운수, 도매·소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28.7%), 반도체 및 부품(24.4%), 자동차(23.1%)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영상·음향·통신(-4.9%), 컴퓨터(-11.4%), 가죽 및 신발(-5.7%)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9.4%), 도매·소매(8.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8.0%), 금융·보험(7.8%), 출판·영상·방송(7.5%), 협회·수리·개인(6.3%), 보건·사회복지(5.9%), 교육(5.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19.0%), 숙박·음식점(-0.7%) 등에서는 감소함.
 - 2011년 1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0.8%, 22.3%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14.1%), 의복 등 준내구재(11.9%),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9.1%)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함.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 투자는 줄었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 크레인 등의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 건축공사(주거용),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민간부문의 주택 및 사무실·점포 등의 발주가 감소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치산·치수, 도로·교량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3.9%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보다 1.1p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0%로 전월보다 0.2%p 상승함.

◆ 2010년 연간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대비 각각 16.7%, 3.7% 증가

○ 2010년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운수,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도매·소매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대비 3.7% 증가함.

○ 2010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1.8%로 전년대비 7.2%p 상승함.

○ 2010년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 및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대비 각각 6.7%, 19.9%, 10.9%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불변),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대비 각각 3.4%, 19.7% 감소함.

◆ 201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5% 상승(생활물가지수 5.2% 상승)

○ 201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8%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하여 전월의 4.1% 상승 이후 2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8%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부문에 서는 각각 12.2%, 6.6% 상승하였음.

- 2011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22.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8.6% 상승하였음.

- 2011년 2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25.2%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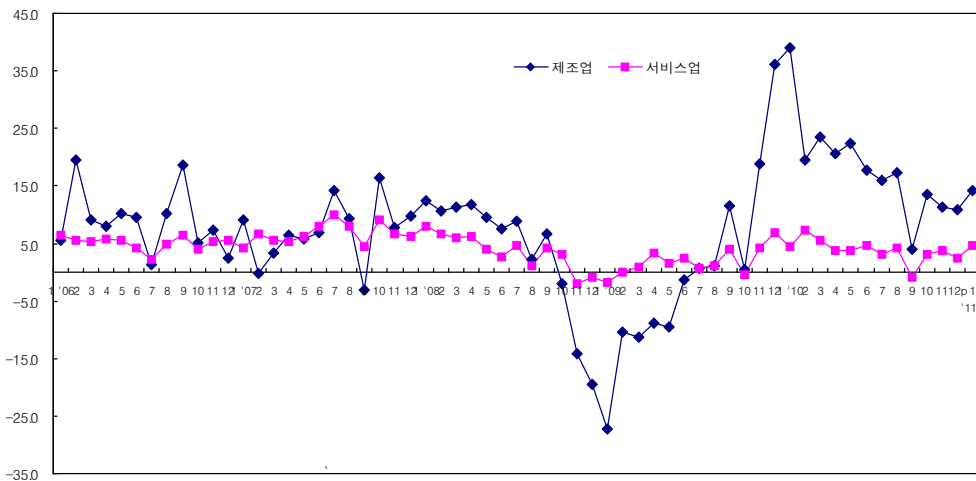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1월	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37.0	13.7(4.6)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38.7	14.1(4.5)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31.4	14.4(4.4)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29.0	9.5(-2.4)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34.6	21.3(-1.6)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5.7	4.6(1.5)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6.7	10.8(4.3)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26.3	22.3(4.5)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4.1	4.5(0.8)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2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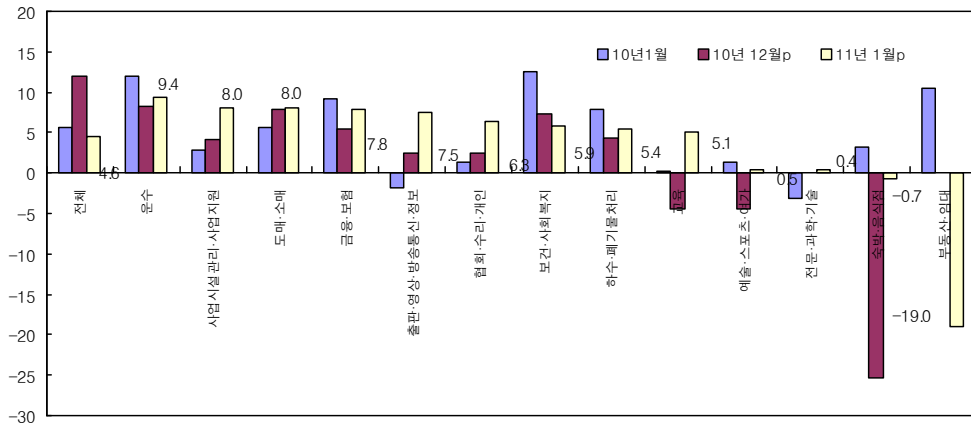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2011.3), 『2011년 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4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6천 명(1.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422천 명으로 230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은 10,009천 명으로 166천 명(1.7%) 증가함.
- 2011년 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2.1%)은 전년동월대비 0.3%p, 여성(47.9%)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2월 중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68.9%로 전년동월대비 0.7%p, 여성의 고용률은 45.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2월 중 취업자는 23,3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9천 명(2.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7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2천 명(2.2%)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5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7천 명(1.9%)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1년 2월 중 실업자는 1,0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 명(-6.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남성 실업자는 6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 명(-8.8%), 여성 실업자는 4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2.4%) 감소
- 실업률은 남성이 4.5%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성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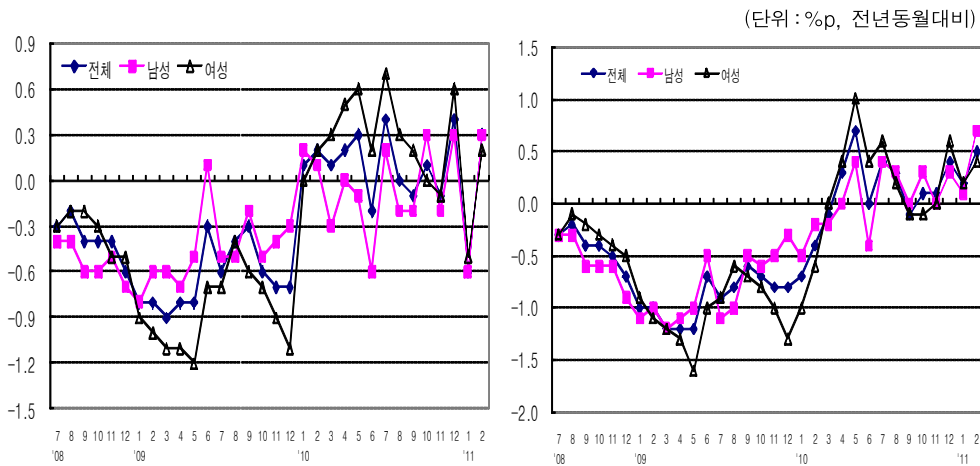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4,448 (0.2)	24,166 (1.5)	24,035 (1.6)	25,038 (1.5)	24,993 (1.4)	24,796 (1.4)	24,114 (0.1)	24,431 (1.6)
참가율	60.7	59.8	59.5	61.8	61.5	60.8	59.0	59.8
취업자	23,631 (0.0)	23,037 (0.6)	22,867 (0.5)	24,170 (1.8)	24,120 (1.6)	23,989 (1.5)	23,196 (1.4)	23,336 (2.1)
고용률	58.7	57.0	56.6	59.6	59.3	58.9	56.8	57.1
실업자	817	1,130	1,169	868	873	808	918	1,095
실업률	3.3	4.7	4.9	3.5	3.5	3.3	3.8	4.5
비경제활동인구	15,829 (3.0)	16,254 (1.0)	16,384 (0.9)	15,493 (1.0)	15,656 (0.8)	15,962 (0.3)	16,729 (2.6)	16,448 (0.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3), 『2011년 2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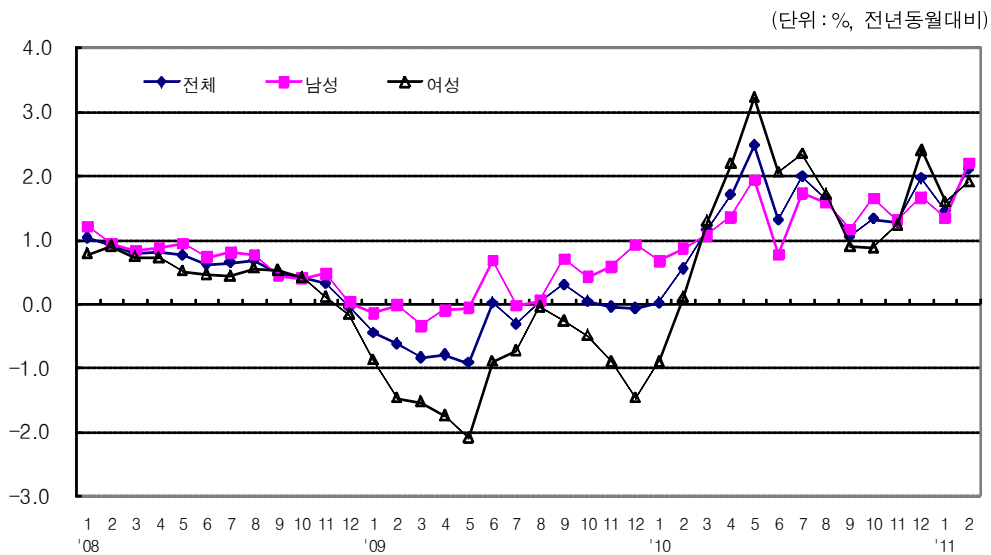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4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 명(0.4%)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7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0.1%)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87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천 명(0.6%)이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천 명 감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15.6%) 증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3,994천 명으로 40천 명(-1.0%)이 감소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KOSIS.

◆ 제조업 증가 지속,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2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262천 명, 6.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56천 명, 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천 명, 1.8%), 건설업(27천 명, 1.7%)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1천 명, -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8천 명, -1.4%)에서는 감소
 -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급격히 둔화하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추세가 회복세를 보임(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산업	23,631 (0.0)	23,037 (0.6)	22,867 (0.5)	24,170 (1.8)	24,120 (1.6)	23,989 (1.5)	23,196 (1.4)	23,336 (2.1)
농림어업	1,579 (-6.9)	1,235 (-11.7)	1,197 (-10.7)	1,733 (-4.6)	1,754 (-2.5)	1,544 (-2.2)	1,018 (-9.3)	1,146 (-4.2)
제조업	3,862 (-1.2)	3,911 (1.6)	3,886 (1.2)	4,015 (4.5)	4,053 (6.9)	4,131 (7.0)	4,148 (5.7)	4,149 (6.7)
건설업	1,704 (-5.9)	1,644 (-3.6)	1,595 (-5.2)	1,816 (2.5)	1,791 (5.4)	1,761 (3.3)	1,632 (0.9)	1,622 (1.7)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511 (-2.6)	5,532 (-1.0)	5,539 (-0.5)	5,461 (-1.3)	5,443 (-1.2)	5,442 (-1.3)	5,499 (-1.8)	5,461 (-1.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149 (4.6)	7,859 (3.2)	7,797 (2.8)	8,294 (3.9)	8,244 (0.9)	8,234 (1.0)	8,001 (3.4)	8,053 (3.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02 (1.8)	2,834 (4.1)	2,833 (4.8)	2,831 (2.4)	2,816 (2.3)	2,855 (1.9)	2,874 (1.2)	2,883 (1.8)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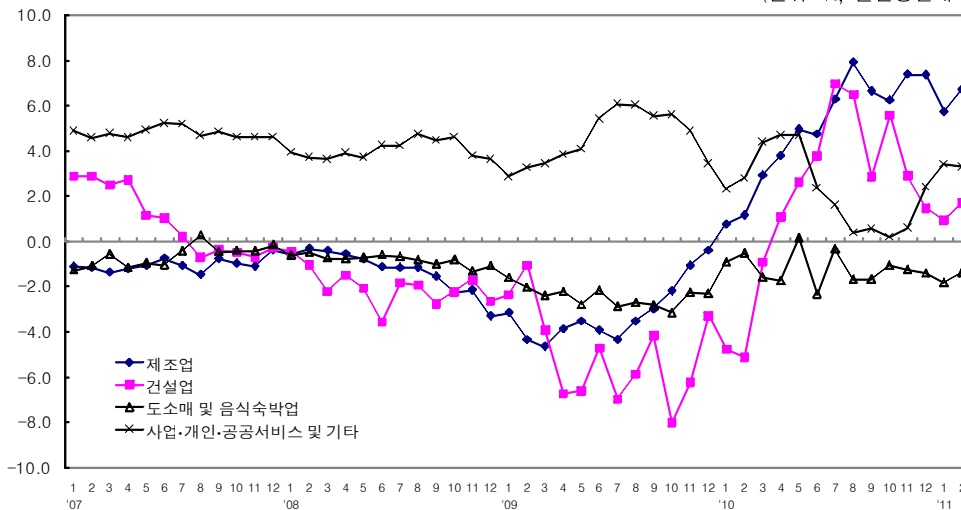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3), 『2011년 2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추세 지속

- 2011년 2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4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천 명(-1.6%)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8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4천 명(3.5%)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390천 명으로 604천 명(6.2%)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781천 명으로 57천 명(-1.2%)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84천 명으로 27천 명(1.6%) 증가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용근로자가 소폭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감소세가 지속(그림 6 좌측 참조).
 - 2010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 자영업자는 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급가족종사자 소폭 증가(그림 6 우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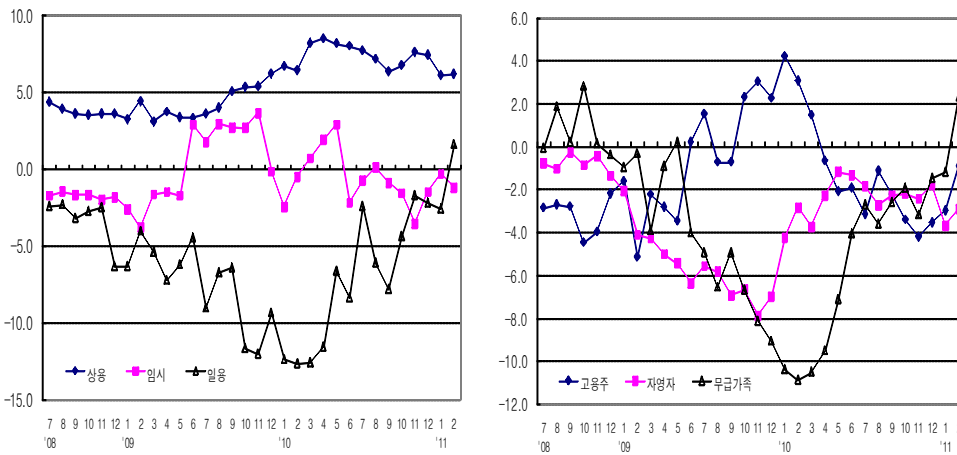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23,631 (0.0)	23,037 (0.6)	22,867 (0.5)	24,170 (1.8)	24,120 (1.6)	23,989 (1.5)	23,196 (1.4)	23,336 (2.1)
비임금근로자	6,952 (-5.3)	6,638 (-3.5)	6,585 (-3.0)	7,023 (-2.6)	6,994 (-2.4)	6,778 (-2.5)	6,365 (-3.1)	6,480 (-1.6)
자영업주	5,600 (-4.7)	5,514 (-1.9)	5,489 (-1.3)	5,696 (-1.6)	5,646 (-2.3)	5,514 (-2.6)	5,283 (-3.5)	5,359 (-2.4)
무급가족종사자	1,292 (-7.9)	1,124 (-10.6)	1,097 (-10.9)	1,327 (-6.9)	1,348 (-3.0)	1,264 (-2.2)	1,081 (-1.2)	1,122 (2.3)
임금근로자	16,678 (2.4)	16,398 (2.3)	16,282 (2.1)	17,148 (3.8)	17,126 (3.3)	17,211 (3.2)	16,832 (3.3)	16,856 (3.5)
상용근로자	9,621 (5.7)	9,808 (7.1)	9,786 (6.4)	10,060 (8.2)	10,158 (7.1)	10,320 (7.3)	10,305 (6.1)	10,390 (6.2)
임시근로자	5,167 (2.1)	4,892 (-0.7)	4,838 (-0.5)	5,179 (0.8)	5,148 (-0.5)	5,052 (-2.2)	4,848 (-0.3)	4,781 (-1.2)
일용근로자	1,891 (-11.1)	1,699 (-12.5)	1,657 (-12.6)	1,909 (-8.8)	1,820 (-5.4)	1,838 (-2.8)	1,680 (-2.6)	1,684 (1.6)
36시간 미만	2,961 (4.5)	4,851 (56.9)	8,056 (153.8)	3,197 (6.7)	3,329 (-1.8)	3,090 (4.4)	3,275 (2.3)	3,227 (-59.9)
36시간 이상	20,404 (-0.7)	17,671 (-8.7)	14,169 (-25.7)	20,705 (1.1)	20,362 (2.4)	20,620 (1.1)	19,267 (1.2)	19,628 (38.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 3), 『2011년 2월 고용동향』.

- 2011년 2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29천 명(-59.9%) 감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628천 명으로 5,458천 명(38.5%) 증가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60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 명(-18.5%) 감소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전 연령 모두 실업자 증가

- 2011년 2월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20대(8.3%, -1.5%p), 40대(2.7%, -0.3%p), 50대(2.8%, -0.4%p)에서 감소
 - 30대(4.2%, 0.2%p), 60세 이상(6.5%, 0.5%p)은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5.1%, 0.2%p)에서는 증가하였고, 고졸(4.7%, -0.4%p), 대졸 이상(3.9%, -0.7%p)은 감소
- 2011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1,095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1,050천 명으로 58천 명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1월	2월
전 체	817(3.3)	1,130(4.7)	1,169(4.9)	868(3.5)	873(3.5)	808(3.3)	918(3.8)	1,095(4.5)	
15~29세	320(7.6)	408(9.5)	433(10.0)	332(7.7)	323(7.6)	297(7.1)	363(8.5)	357(8.5)	
30~39세	202(3.3)	234(3.9)	242(4.0)	217(3.6)	213(3.5)	194(3.2)	214(3.6)	250(4.2)	
40~49세	151(2.3)	192(2.9)	198(3.0)	154(2.3)	165(2.5)	151(2.2)	143(2.2)	183(2.7)	
50~59세	104(2.2)	150(3.2)	151(3.2)	105(2.1)	113(2.3)	114(2.3)	120(2.5)	137(2.8)	
60세 이상	41(1.5)	146(5.8)	145(6.0)	61(2.1)	59(2.0)	53(1.9)	78(3.3)	168(6.5)	
중졸 이하	119(2.3)	241(5.1)	225(4.9)	131(2.5)	131(2.5)	112(2.2)	173(3.8)	236(5.1)	
고 졸	393(4.0)	493(5.0)	504(5.1)	386(3.8)	408(4.0)	392(3.9)	442(4.4)	473(4.7)	
대졸 이상	306(3.2)	396(4.2)	440(4.6)	352(3.6)	334(3.5)	304(3.1)	303(3.2)	386(3.9)	
취업무경험실업자	36	57	60	46	35	38	54	45	
취업유경험실업자	781	1,072	1,109	823	838	770	864	1050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1.3), 『2011년 2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근로시간동향

◆ 2010년 근로시간, 전년대비 3.1시간 증가

○ 2010년 근로시간, 전년대비 1.8% 증가

- 2010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9시간을 기록하여 전년(172.8시간)에 비해 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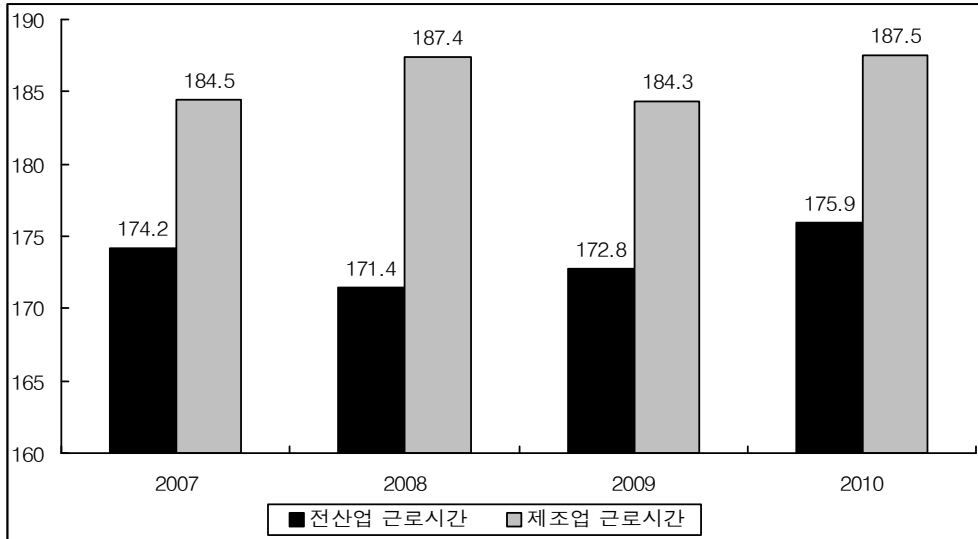
◆ 제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 증가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등은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은 감소함.

- 2010년 제조업 근로시간은 월평균 187.5시간으로 전년의 184.3시간보다 1.7% 증가함.

[그림 7]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표 6]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

	2008	2009	2010			
			2/4	3/4	4/4	
전 산업	171.4 (-1.6)	172.8 (0.8)	175.9 (1.8)	176.9 (2.5)	172.6 (-2.4)	182.7 (4.2)
제조업	187.4 (1.6)	184.3 (-1.7)	187.5 (1.7)	189.7 (0.4)	183.1 (-1.1)	194.0 (3.0)
건설업	155.2 (-4.2)	156.9 (1.1)	155.8 (-0.7)	156.3 (1.6)	152.7 (-7.9)	162.4 (6.5)
도매 및 소매업	167.1 (-1.4)	172.0 (2.9)	173.7 (1.0)	175.1 (2.6)	170.9 (-3.2)	179.6 (2.5)
음식숙박업	172.8 (-2.6)	171.3 (-0.9)	167.5 (-2.2)	168.1 (-0.8)	164.6 (-6.3)	172.7 (-0.3)
운수업	175.0 (-6.1)	179.5 (2.6)	180.1 (0.3)	179.5 (-0.7)	180.0 (-2.2)	184.5 (1.3)
통신업	163.0 (-2.5)	162.8 (-0.1)	163.1 (0.2)	164.4 (-1.0)	160.1 (-2.4)	168.7 (5.1)
금융 및 보험업	160.1 (-0.4)	158.7 (-0.9)	156.9 (-1.1)	156.7 (-2.6)	153.9 (-3.2)	163.6 (4.0)
부동산 및 임대업	184.8 (-7.8)	186.4 (0.9)	184.6 (-1.0)	185.6 (-0.5)	181.2 (-3.9)	187.9 (-0.9)
사업서비스업	169.2 (3.2)	168.2 (-0.6)	169.4 (0.7)	168.3 (-0.6)	165.9 (-0.4)	177.5 (3.0)
교육서비스업	141.7 (0.8)	145.9 (3.0)	141.9 (-2.7)	142.3 (-2.1)	137.9 (-6.1)	151.4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7.0 (-2.6)	165.9 (-0.7)	167.3 (0.8)	167.4 (-0.1)	165.1 (-0.6)	174.0 (3.9)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6.2 (0.5)	155.6 (-0.4)	163.7 (5.2)	165.3 (5.4)	162.1 (2.2)	170.4 (6.8)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7.2 (-1.4)	176.3 (-0.5)	173.9 (-1.4)	175.0 (-2.0)	171.2 (-4.1)	177.5 (0.2)

주: 1)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 2010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5.2%, 도매 및 소매업 1.0%, 제조업 1.7%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교육서비스업 -2.7%, 음식 숙박업 -2.2%, 금융 및 보험업 -1.1%,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를 기록하여 낮은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제조업이 187.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부동산 및 임대업 184.4시간, 운수업 180.1시간 등의 순으로 길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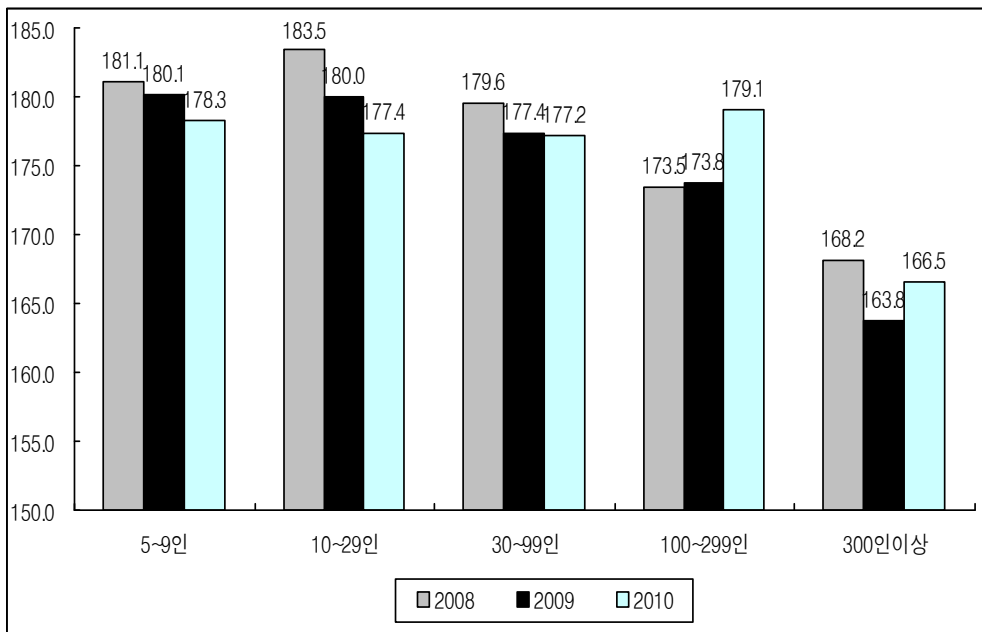
◆ 100인 이상 규모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0년 규모별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주로 증가

- 2010년 규모별 근로시간 증가율을 보면, 100~299인 3.0%, 300인 이상이 1.6% 증가한 반면, 5~9인에서 1.0% 감소하였고, 이 밖에 10~29인 1.4%, 30~99인 0.1% 감소함.

[그림 8]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월)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 2010년 4/4분기 근로시간, 전년 동기보다 7.3시간 증가

- 2010년 4/4분기 근로시간, 전년동기대비 4.2% 증가
 - 2010년 4/4분기 상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2.7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기(172.6시간)에 비해 7.3% 증가
 - 경기활성화 및 추석효과로 2010년 4/4분기 총 근로시간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3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3월 21일 기준)는 78,468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2011. 3. 24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3	6	-
종 결	1	4	-
진 행	2(8)	2(3)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78,468	58,643	33.8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3월 16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한진중공업
 - 노조 지회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1) 전면파업과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음. 이미 사측은 2월 14일부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3월 현재 노사간 교섭은 교착되어 있고, 노사의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3월 10일 노조 지회는 부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사측 대표 등 7명을 불법 대체인력 투입 혐의로 부산고용청에 고소함. 3월 15일 사측은 노조 간부 등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황임.

2010.2.2 경영상 이유 해고계획(3.5자 352명) 신고 → 5.18 조정신청(5.28 조정중지) → 5.26~5.28 파업 찬반투표 가결(83% 찬성) → 2010.1.5~2.19 정리해고 철회 요구 간헐적 부분파업 → 12.20부터 전면파업 → 2010.12.20~2011.1.11 생산직 82명, 희망퇴직 신청 → 1.12 사측, 290명 해고(2.14자)예고 통보 → 1.12~1.31 생산직 100명, 추가 희망퇴직 신청 → 2.14 172명 정리해고 실시 → 2.16 금속노조 부양지부, 부산지노위에 172명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제출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3월 9일 조합원 총회개최 이후 2차 파업 중단, 현장복귀 결정. 작년 파업 이후 노조 지회의 파업동력이 떨어짐. 더구나 하청업체들이 1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징계조치(해고 13명, 1~3개월 정직자 106명, 1~3개월 감봉자 150여 명 등)
- 하청업체들의 2차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 이들 지회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미 하청업체들은 2차 징계추진에 반발해 작업을 거부했던 아산지회의 조합원 중 19명에 대해 징계해고 실시함.
- 하청업체들의 징계에 지회들은 지속적인 잔업거부, 특근거부 투쟁을 벌여 왔으나 노조 탈퇴자가 일부 발생되고 있고, 금속노조의 일괄적인 재심신청에도 하청업체들이 응하지 않고 있음. 지회들은 현장복귀를 결정하였으나 지회별로 2차 징계추진에 반발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2010.7.22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 해 4차례 임단협 교섭 요구를 현대차가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 11.5 중노위에 조정신청 → 11.11~11.12 지회별 파업 찬반투표, 각 가결(76.3%~86.7% 찬성) → 11.15 현대차가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을 거부한 조합원의 출근저지, 1,190여 명 파업 돌입 → 12.9 울산지회, 아산·전주지회 파업 또는 잔업거부 중단 → 2010.12.9~2011.1.20 5자(금속노조·현대차지부·사내하청노조 3지회·현대차·하청업체)와 5차례 회동했으나 고용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전북지역시내버스노조(민주노총 소속 7개 지회)

- 작년 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를 탈퇴한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 지회들은

1) 그 외 노조 지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① 현 사태 유발 책임자(이재용 대표이사, 조원국 임원, 박승중 상무) 경질 ② 희망퇴직·정리해고 철회 ③ '09년·'10년 성과급 배분 ④ 수빅조선소 수주선박 8척을 영도조선소에서 건조 ⑤ 고소고발·징계 철회 ⑥ 부당휴업 중단 ⑦ 고정OT 40시간·노조활동 등 단체협약 준수 등이 주요 내용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복수노조 등의 이유를 들어 교섭거부. 2010년 12월 8일부터 민주노총 운수노조 7개 지회는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3월 현재까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전주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잠정 중단하기로 함(2011년 도비 보조금 25억 원 가운데 1/4분기 재정지원금을 중단 예정). 보조금 중단은 버스 노사 양측에 압박카드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나 사측이 민주노총과 교섭을 개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2010.10.25~11.22 7개지회, 조정신청 → 11.18~12.7 전북지노위, 각 행정지도(교섭미진) → 11.20~12.3 7개지회, 파업 찬반투표 가결(71.0%~100% 찬성) → 12.8. 전면파업 돌입 → 12.10 5개사(제일·호남·전일·신성·시민여객), 12.16 1개사(전북고속) 직장폐쇄

■ 공공서비스노조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분회

- 공공서비스노조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분회 소속 청소·경비 조합원들은 3월 8일 1차 전면 파업 이후, 14일 2차, 15일 3차 부분 파업에 돌입함. 현재까지 노조 분회와 청소·경비 용역업체 간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특히 임금교섭에서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천320원을, 노조는 시급 5천180원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음.2)
- 현재까지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한데다 대학측이 용역업체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0. 10월부터 노조는 용역업체 9개사와의 12차례 임단협 집단교섭 개최 → 2011.2.21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 → 3.1 공공서비스노조, 3개분회의 파업 찬반투표(86.5% 찬성) → 3.8 3개 분회, 1일 파업(729명 참가) → 3.10 노사 임·단협 집단교섭(13차), 기존 입장 고수로 진전 없이 종료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63빌딩 주차·경비노조

- 지난 10년간 용역업체가 총 3차례 변경. 주차·보안 도급입찰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TK태경산업에서 하이파킹으로 용역업체 변경. 2월 1일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신규용역업체에 고용 및 기존 단협승계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시작. 63빌딩 지하 1~3층(숙소·여직원탈의실·노조사무실) 점거농성 계속 중임.

2) 3월 15일 실시된 교섭에서는 양측 수정안이 제시됨. 사측은 시급 4,320원→4,450원, 식대 월 10,000원 인상, 그 외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노측은 시급 4,800원→4,700원, 식대 월 88,000원→월 60,000원, 명절(설, 추석) 상여금 기본급의 50%→연 300,000원을 제시하였음.

■ MBC 노조

- 지난 1월 사측은 노조의 경영권·인사권 침해조항 등의 이유로 단협해지 통보한 상황임. 임단협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나, 현재 PD수첩 관련, 지역 MBC 강제통합 등이 현안문제임.
- 서울MBC 시사교양국 PD 20여 명, PD수첩 최승호 PD의 타프로그램 인사발령 등에 항의해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으며(3월 9일), 강릉삼척MBC지부는 3월 7일부터, 충주MBC 지부는 3월 4일부터 지역MBC 강제통합을 반대하며 겸임사장 출근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외환은행

- 3월 11일 노사는 2010년 임단협 합의(정규직 임금 2% 인상, 계약직 5% 인상 등)
- 내부 노사관계 문제보다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인수 승인과 관련한 쟁점이 초미의 관심사임. 3월 15일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96.1%로 가결됨.
- 3월 16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 대해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면서 현재 상황은 다소 진정국면. 향후 론스타에 대한 법적 판단과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외환은행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

■ 전국전력노조

- 지난 3월 8일 제19대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김주영 후보가 65.1% 득표로 당선됨. 제16대부터 전력노조 위원장을 역임. 현 4선.
- 임기는 올 3월 14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주요공약은 한전 재통합 완수, 공기업 최고 임금 및 복지 확보, 사장 선임시 노조 참여 등임.

■ 발전노조 5사

- 3월 4일 제19차 단체교섭, 잠정합의 이후 17일 단협체결(85.8% 찬성)
- 2004년 이후 7년 만에 자율적 합의. 노조가입, 인사원칙, 노조교육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음. 특히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연간 26,000시간(풀타임 13명), 무급전임자 1명으로 함(기존 전임자: 단협상 13명, 실제 12명).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노사가 협의하기로 합의함.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3월 6일)

-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표준생계비 대비 75~80%의 임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함. 또한 ‘고용형태-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

표로 제시³⁾

- 특징적인 것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표준 생계비 등을 근거로 ‘각 산업별(산별노조)’로 요구안을 정하기로 했다는 점임. 이렇게 정한 배경에는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측의 설명임.

○ 한국노총,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위한 행보 이어져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선 이후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3월 중에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현장순회를 하고 있음. 지난 3월 9일에는 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여야에 전달하였음.⁴⁾
- 한국노총이 창립 65주년이 되는 날인 지난 3월 10일에는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노조법 재개정투쟁을 예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한국노총과 관계복원을 피함.
-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당수 사업장들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향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의 한국노총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속적으로 관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양대노총 등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 처리 요구

- 3월 3일 양대노총을 포함하여 55개 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국회는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라는 공동논평과 함께 환노위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3가지 과제를 발표함.
- 특히 연대회의는 2010년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된 법안 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관계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논의는 답보상태임.

○ 3월, 양대노총 사업장 임단협 개시

- 민주노총 금속노조⁵⁾,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이 201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 상

3) 2012년 최저임금안으로 시급 5,410원(월급 환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1,130,690원)을 요구, 2011년 시급인 4,320원 대비 25.2% 인상한 수준임. 아울러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도 2010년 평균임금 대비 24%를 인상한 수준인 1,551,000원으로 산정함(시간당 7,421원).

4) 개정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전임자 임금, 근로시간 면제,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사업장 한정 삭제 및 이중가입 제한 등임.

- 반기, 3월부터 임단투를 계획 중에 있으며 7월경 시기집중 파업을 예정하고 있음.
- 금속노조의 경우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지회의 파업 등 굵직한 현안이 함께 겹쳐 있었고, 금속노조와 금융노조는 양대노총의 대표적인 상급노조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노사관계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신고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3월 17일,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법상 노조설립이 신고제이긴 하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함.
-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처음임.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고자, 규약제정 절차 등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모두 설립 신고가 반려된 바 있음.

◆ 경영계 동향

○ 경총 등 경제 5단체,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 3월 10일, 경제 5단체장(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은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함.⁶⁾ 주요한 내용은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고, 정치권의 노사관계 개입과 노동계 편향적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사내하도급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투쟁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
-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재 한진중공업 등 장기파업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등 현안 문제들이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명서에도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치권의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노동계 편향적 행보’를 중단하라는 요구로 드러나고 있음.

◆ 정부, 국회 동향

○ 고용노동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 5) 임단협 공동요구안: 최저임금 150,611원 인상, 7.1 이후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2년 이상 상시업무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 6) 같은 날인 10일, 민주노총은 경제 5단체 성명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금속노조도 15일 ‘노사정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3월 고용노동부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함.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장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년 체불 임금규모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산업 재해율 또한 높은데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상생일터 만들기로 네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 ‘안심일터’는 현재 4.45%의 사고재해(천인)율을 2011년도에는 4%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정일터’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와 고용차별 해소를 통해 2011년 체불사건 사전조정 해결률 20%, 최저임금 미만을 10%을 목표로 함.
- ‘신바람일터’는 근로시간 단축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0년 2,111시간을 ’12년 1,950시간으로, 2020년에는 1,8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퇴직연금은 2011년 40조 원, 260만 명 달성하도록 추진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상생일터’는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는 ‘일터 혁신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하여 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 ‘외국의 사내하도급 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공개
 - 지난해 7월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커 해외 실태를 조사하기로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적으로 제조업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의 임금차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파견직을 정규직화하거나 간접고용을 최소화한 사례 등을 담고 있음.
- 국회 환노위, 노사관계 현안 문제 놓고 파행
 - 3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중단됨.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진중공업, 쌍용차, 현대차, 전주 버스 파업 등에 대한 청문회와 삼성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을 조사하기 위한 산업재해소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국 회의가 중단되었고, 결국 김성순 환노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문제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기 위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화됨.
 - 한편 8일 국회 환노위 의원 4명이 부산 한진중공업을 방문하였고, 이 날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 **KLL**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